

지역 소식통

김제시, 2020년 하반기 신속재정집행 총력 추진

김제시는 지난 22일 시정 2층 상황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하반기 지방재정 적극적 추진을 위해 '2020년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강해원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실과소장과 30여개 부서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중 집행실적 점검과 남은 기간 집행계획과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자리로 각 부서별 10월 집행 실적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집행력을 집중하는 강조하는 자리였다.

김제시는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재정집행 추진체계 운영, 주 1회 이상 추진상황 점검, 부서별 10월이상 부진사업 관리, 선급 최대 집행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긴급입찰 등 하반기 재정집행 집행을 적극 활용해 12월 말까지 집행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공무원, 성인지각 수성함양 교육 실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23일 김제시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성인지각 수성함양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의 성인지각수성 향상과 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평등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리직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의 필수 참석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실시한 성인지각 수성함양교육은 박지영(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강사를 초청해 공직자 개인의 성인지각수성을 점검해보고, 성인지의 사회적 의미와 법적 의미를 이해하고, 성인지 관점에서 정책과 관료의 변화를 이끈 사례를 전달하여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는 시간이 되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울진 방문의 해 '협력'

## 양 지자체 '방문의 해' 성공추진 위한 의기투합... 공동마케팅 간담회 개최·협약 체결

호남과 영남을 대표하는 기초단체인 완주군과 경북 울진군이 '방문의 해' 공동마케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등 의기투합에 나섰다.

박성일 완주군수와 전찬걸 울진군수는 지난 23일 완주군청 대회의실에서 '방문의 해' 공동마케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방문의 해'와 관련한 공동 이벤트 추진은 물론 각종 행사 개최 등에 있어 입체적이고 긴밀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1년부터 '방문의 해'를 시작하는 양 지자체가 지난날 21일 울진군청에서 공동마케팅 협약을 맺은 데 이어 두 번째 행사다.

박 군수는 이날 "코로나19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며 "급속하게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울진군과 입체적으로 협력하여 촘촘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두 지자체가 손을 잡고 서로의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방문의 해'의 성공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앞서 완주군과 울진군은 '방문의 해' 공동마케팅을 위해 두 지자체의 협약 내용을 토대로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 공무원 역량교육, 사회단체 교류 활성화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두 지자체는 특히 축제 개최 시 두 지역의 특산물 판매와 홍보부스 설치·운영, 방문의 해 관련 공동 이벤트 추진, 행사 개최 시 상호협력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협의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끈다.

호·영남을 대표하는 두 지자체가 같은 시기에 '방문의 해'를 선언하고 상생 협력적 마케팅에 나서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거의 없는 이례적인 사례로, 지역감정 해소는 물론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 지자체를 연결해준 ㈜코트과 박강섭 대표의 '코로나 관광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코로나 시대에 관광마케팅 대응 전략 특강이 이뤄졌다.

박 대표는 이날 강의에서 "코로나 시대에 관광산업 소멸위기 지자체 등장은 불가피하다"며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주문하고 시대 흐름에 맞게 지역관광자원 재해석 작업이 절실하며, 지역관광 명소화·명품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완주군, 190여대 추가 지원... 오늘부터 접수

완주군이 주요 대기오염 배출원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완주군은 상반기 1000여대에 16억원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데 이어 국도비 2억, 군비 1억원 등 총 3억원, 190여대를 추가 지원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중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공고일 이전 완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소유 기간이 공고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이 동판정인 있어야 하며, 보조금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제외된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일

경우 기준가격의 70%(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이면 100%(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저소득층은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지원율에 10%를 추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 까지이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등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완주군청 환경과로 방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완주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동민 환경과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적극 추진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2020년 총 50억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년 총 1,400여대의 운행차 저공해를 시행해 완주군의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 강해원 김제 부시장, 내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 국회 상임위별 국회의원 면담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 건의

2021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시정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총력을 다해온 김제시가 국회 단계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11월을 앞두고 박준배 시장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강해원 부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김제시 주요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며, 김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강 부시장은 지역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전북지역 국회의원실 등을 차례로 찾아 현안사업인 '김제 백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김제 용지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등 6



지난 23일에는 강해원 부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김제시 주요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개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지원을 요청했다.

강 부시장은 "지역발전 견인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만큼, 국회의심 단계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성덕면, 위기가정 찾아가는 복지상담 실시

김제시 성덕면(면장 강기수)은 지난 23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등 빈곤 위기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현장복지행동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실시했다.

성덕면은 이번 상담을 통해 저소득 계층의 주거실태 현황 및 복지

육구를 파악하고 생활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 등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과약된 복지목구는 가구별 특성에 맞게 공공서비스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물론 복합적인 육구가 있는 가정

은 사례관리 부서로 의뢰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며, 저소득층과 위기가정을 수시로 방문해 생활불편 사항을 살피고 지원할 예정이다.

성덕면장은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를 통해 소외된 계층이 적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로컬푸드 공급확대 위한 농산물 저장기술 교육

완주군이 로컬푸드 공급확대를 위해 농산물 저장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20일에 이어 오는 27일에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공급식 참여 농업인, 실무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저장기술 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대강당에서 이뤄지는 이번 교육은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위한 기획생산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일 실시한 1차 교육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임향란, 장민선 연구사가 강사로 나서 ▲원예작

물의 특징 ▲수확 후 관리기술 ▲양파·양배추 저장유통 기술 ▲저온시설 견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27일 실시하는 2차 교육은 당근·감자·무 저장유통 기술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재윤 먹거리정책과장은 "공공급식 등을 중심으로 지역농산물 로컬푸드를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함으로써 중소농 소득 증대, 먹거리 안전성 제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필요하다"며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차별화된 생산자 조직 육성 및 실질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금강건설(부안) 천년기획, (전순기)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